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악한 왕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아합 왕과 그와 반대로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요 선지자 가운데 한명인 엘리야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 오므리의 아들이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 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들어 '여로보암의 죄'를 시작하였다면 아합은 이스라엘을 온통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죄악으로 뒤덮은 최악의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합은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16:30). 아합이 얼마나 악하게 행했는지는 16장31절부터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으며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바알을 예배하였습니다. 아합은 동시에 아세라 상을 만들었는데 아합의 이러한 모든 죄악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더욱 악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16:30-33).

이렇게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으며 많은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고 엘리야는 아합을 찾아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수 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은 가뭄과 기근을 내리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한 후에 엘리야는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가서 그 시내가 마르기 까지 그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과부에게 음식을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남은 가루로 자신을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17:14)."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후 그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아들을 자신의 거처가 있는 다락으로 옮기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17:22).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시작 되고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아합에게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찾아갔습니다. 아합도 엘리야가 다시 돌아오기를 내심 기다렸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18:17)"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에 있는 기근에 대한 탓을 엘리야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18:18)."

엘리야가 아합에게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 산으로 모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18:21)."

하지만 백성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 편으로는 하나님을 따라야 할 것도 같지만 다른 편으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 주류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을 취득하려는 이중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갈멜 산에 모인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불러보았지만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단지 허무한 목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였습니다(18:30).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였고 돌 12개를 취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놓고 제단 주변에 많은 물을 부어서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18:36-37)."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루 종일 불러도 대답이 없던 바알이나 아세라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부르짖음에 단 번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을 내리셨습니다(18:38). 그 불이 번제물 뿐 아니라 나무와 돌과 흙까지도 태웠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백성들은 모두 엎

드려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는 백성들을 바알 숭배로 이끈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기손 시내로 잡아다가 거기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큰 비가 내렸습니다. 기근이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아내 이세벨과 함께 백성들을 이끌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부르고 계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어 모두 다 고통을 당할 때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혹독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직 사르밧의 과부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뭄과 기근 가운데에서도 그의 그릇이 마르지 않고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죽은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과 생명의 근원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합은 22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악한 왕으로 기록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으며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는 이러한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다고 하여도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이 받을 결말은 오직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멸망할 수 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인들이 이 땅에 살 때에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를 소유하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는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와 같은 인생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며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